

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경상북도 대구
- 대평지역아동센터



2017. 7

최*민

봉사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잘 따라줘서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했다.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짐이 정말 아쉬웠다. 센터 친구들에게서 행복한 기운,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것 같아 좋았고 아이들에게도 잊지 않을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. 하지만 봉사를 하며 센터의 행정, 지원적인 부분이나 숙소 등 불편한 점이 다수 있었는데 다음 이화봉사단 때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했으면 좋겠다.

임*영

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음에도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, 속상한 일들도 있었지만 봉사를 함께한 친구들과 센터 내 아이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 대평지역아동센터의 멘토로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송*진

처음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어수선하였던 아이들과 5일정도의 시간동안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. 캠프를 준비하기 약 한달 정도 전부터 팀원들끼리 만나서 회의도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재밌게, 열심히 이행해준 것에 대하여 가장 감사하다. 캠프 진행 중 힘들었던 일들 모두 아이들이 예쁘다는 것 하나로 잊을 수 있었고, 팀원들 또한 모든 일에 함께 머리 맞대고 열심히 임해주어서 감사하다. 방학동안 이번 이화봉사단 덕분에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가는 기회가 된 것 같다.

김*미

처음 멘티들을 만났을 때는 멘티들이 생각보다 어려 우리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.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은 단지 나의 우려로만 그쳤다.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고,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멘티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. 조금의 난이도 조절은 있었지만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성공리에 끝낼 수 있어 마지막 날엔 뿌듯하면서도 더 많은,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주지 못한 것같아 아쉬웠다. 긴 듯 하면서도 짧은 일주일동안 멘티들과 함께 지내고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. 또한 이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.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멘토와 센터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. 의사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졌다면 멘티들을 위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운 점이 남았던 활동이었다.

김*정

지금까지 총 4번의 교육봉사를 했고,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.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의 어색함과 헤어질 때의 아쉬움은 익숙해지기 보다 더 커진 것 같다. 우리 팀원들의 개성이 모두 다르듯, 아이들 한명 한명이 전부 특별했기에 금방 잊혀 지지 않는다.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아이들, 정말 이화 봉사단의 완성은 아이들이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항상 캠프가 끝나면 더 잘해주고, 같이 많이 함께 할 걸 아쉬운 마음이 크다. 특히나 많은 활동들이 함께 만들고, 꾸미는 것이 많다보니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, 정도 많이 들었다. 이렇게 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만큼 아이들에게도 이번 여름방학은 특별했으면 좋겠다.

그리고 우리를 믿고,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.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함께 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.

헤어질 때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다며 우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정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걸 아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. 통제를 위해 혼냈던 것이 혹시나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, 더 잘해주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.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똑같은 아이들과 또 한번 더 추억을 만들고 싶다.

김*은

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장학재단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. 저번에는 고등학교로 갔는데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어 그 의미가 사뭇 달랐다. 저번 활동을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. 또한 이번에 단장을 맡게 되어 부담감이 컸는데 다행히도 팀원들의 케미가 잘 맞아서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. 멘티 아이들 또한 너무나도 명랑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너도나도 헤어질 때 아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.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하였다.

권*지

고등학교로 이화 봉사단을 갔었지만,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마주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무척 떨렸다. 아이들의 주의를 한 번에 집중시키는 일이 좀 어려웠고 지쳤지만, 그만큼 아이들에게 너무 정들었다.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이뻐고 비록 5일이라는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정들어서 헤어질 때 힘들었다. 아이들도 우리의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었고, 아이들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.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다시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또 마련하고 싶다.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이화봉사단, 장학 재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.